

예배안내

JUNE 1ST 2025

주일1부예배	9 AM	아가페홀
주일2부예배	10:45 AM	본당 & 라이브
중고등부	11 AM	아가페홀
주일학교	11 AM	본당 지하
화요소망학교	11 AM	본당 지하
수요예배	7 PM	본당
AWANA (수)	7 PM	아가페홀
새벽예배 (화-토)	6 AM	본당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성직 목사
방송/교육	오정훈 목사
소망학교	오명한 목사
청년부	청빙중
찬양/중고등부	문강한 전도사
주일학교	김성은 사모 전인성
시무장로	윤순기
휴무장로	백형수
은퇴장로	김대희 임병갑 백근조 이덕흥 이창진 윤순화 오귀록
협동장로	전세환
지휘자/서무	박은실
찬양인도	공석우 류충환 문강한
반주자	노윤실 김성은 김은화 이화니
번역/통역	김예람 이화니 박정효 이윤희 김혜연 원영철
방송	조준한 DANIEL SEWELL 조희수

worship
HOPE CHURCH

열방을 섬기는 이들

중 국	이주애	NIM 북한 선교회	임현석 (교회 후원)
케냐	이영규	아파치인디안	강원용
칠레	황신재	키르키즈스탄	바나바/다비다
미얀마	김주연/조성희	아이오와 다민족	서정호 (교회 후원)
모로코	김영목	CHEROKEE	(교회 후원)
요르단	설총호/전경원	CHILDREN MISSION	
도미니카	이광호		

주 일 예 배

경배와 찬양 찬양팀 (15분 전부터 시작됩니다)

* 기원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성시교독 교독문 46번 시편 Psalm 104편

참회의 기도 시편 Psalm 32:5

찬송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기도 오귀록 장로

광고 인도자 / 김성직 목사

파송 및 봉헌찬양 '때로는 너의 앞에'

봉헌기도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성경봉독 욥기 Job 23:1-10

말씀 주께 가까이 가는 지혜자 (15): 나의 가는 길

The Wise Draw Near the LORD(15)

The Way that I take."

*결단의 찬양 찬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 축도 김성직 목사

* STAND UP

(2) 둘째, 영혼은 실천적인 방법, 즉 몸을 통한 행동으로 나타난다.

동정심은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여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게 한다(마 10:42).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그분을 위해 겪게 되는 모든 핍박을 인내로써 견디게 한다. 바로 영혼의 순종이 몸의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을 언급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외적 행동을 통하여 믿음의 실천이 나타남을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이 우리 스스로를 향한 증거라고 말하는 이유는 믿음의 행동의 이면에 있는 내적 동기의 실천을 우리 스스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믿음의 실천을 판단할 때는 몸을 통해 나타나는 외적 행동이 아니라 몸을 다스리는 영혼의 내적 동기로 판단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방법이다.

"나 여호와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 하나니"(렘 17:10).

".....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계 2:23).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외적 행위만 보고 심판하신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왜 우리의 심장과 마음을 살피시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이면에 있는 우리 영의 상태를 보시는 것이다.

그렇다고 내적 동기만 중요하고 외적 행동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은 분리될 수 없다. 영혼은 몸을 다스리고, 거룩한 동기는 순종을 낳는다. 그러므로 몸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몸은 비록 죄로 가득차지만 영혼은 순수하고 깨끗하다고 변명할 수 없다.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의 영혼은 결코 깨끗할 수 없으며 그의 발은 그를 범죄의 소굴로 이끌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실천은 내적 동기와 이에 의한 외적 행동을 모두 포함한다. 우리는 이 둘을 통해서 믿음을 검증해 보아야 한다. 거룩한 내적 동기가 없는 선한 외적 행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천이 아니며, 외적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내적 동기는 있을 수 없다.

제3부 진정한 영적 감정을 분별하는 방법!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을 한 권 나눕니다. 물론 이 역시 완벽한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 안에서도 올바른 믿음과 대각성이 주 안에서 꼭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그렇듯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4.영혼의 내적 순종

-영혼의 내적 동기

성경은 거룩한 삶의 실천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진정한 표징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요일 2:3).

요한은 우리 양심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증거한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요일 3:18-19).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의 행위를 살림으로써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라고 권고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갈 6:4).

예수님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 7:20)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검증하는 것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다. 또한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하셨다.

그렇다면 "계명을 지키라" 또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는 성경 말씀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성경의 명령이 구원에 대한 확신의 기초로 작용한다면 우리가 부름받은 믿음의 실천은 무엇을 뜻할까?

순종은 영혼과 몸을 포함해 인간의 모든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영혼이 우리 몸을 통치하는 것이므로 순종은 영혼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실천은 몸으로 표출되는 외적 순종보다 영혼의 내적 순종의 의미가 강하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드러난다.

(1) 첫째, 영혼은 내적 방법만으로도 드러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영혼은 그 진리의 심오함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이때의 상태는 몸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다같이]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말 씀 나 눔

“주께 가까이 가는 지혜자(15): 나의 가는 길, 욥 23:1~10.”

<본문 속으로>

1. 오늘도 욥 안에는 어떠한 마음들이 존재하고 있나요? (2절)

2. 욥은 내가 받은 재앙이 무엇보다 무겁다고 말하나요? (2절)

3. 욥은 내가 어찌하면 누구를 발견할 수 있겠냐고 고민하나요? (3절)

4.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 욥은 고백하나요? (10절)

5. 누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 같이 나온다고 욥은 믿고 있나요? (10절)

교회와 가정을 위해

-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각 성도가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수요일모임, 새벽예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께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소서.
- 권사 기도회, 장로 기도회, 사역자 기도회, 구역리더 기도회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되는 소망 리더쉽 되게 하여 주소서.
-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선교부원들이 더욱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주시고 보내는 성도들도 한마음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을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 성도들의 가정과 특별히 믿지 않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멀리 있는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그들의 삶가운데 경험하게 하소서.
- 연로한 부모님들을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늘 하늘 소망 가득안고 살아가게 하소서.
- 다음 세대에 신앙의 유산을 물 댄 동산처럼 물려주는 우리 소망교회 되게 하소서,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년부의 영적 부흥이 있게 하소서. 어와나를 통해 아이들이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함께 동역하며 섬겨줄 사역자들을 보내주소서.
- 담임목사님의 영육간을 지켜주시고, 가정 가운데 평안을 허락 하시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망공동체 잘 이끌어가게 하소서.
- 모든 교역자들과 교회 리더십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몸 된 소망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소서.
- 소망교회 안에서 EM 예배가 하나님께 드러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세계를 위해

- 어지러운 한국의 상황과, 미 행정부를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스려 주소서.
- 열방에서 수고로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셔서 주께서 맡겨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교우들을 위해

• 아픈 교우들을 위해

안성실 권사님 허리수술 후 회복, **이창진 장로님** 무릎수술 후 회복과 청력 회복,
오정일 집사님 무릎동맥 수술 후 재수술, **Charles Biesen** (김기홍 권사님) 심장 수술 후 회복시켜 주소서. **캐서린**(신상란 권사님 자녀)을 하나님께서 건강히 회복시켜 주소서.
이복례 집사님:일본 여행 중에 신장염으로 입원 중이십니다.

• 임신한 교우 가정을 위해

Emily 자매와 나리자매(윤순화 장로님 자녀)건강과 태중에 있는 **아기**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해 주소서.

• 특별히 기도하기 위한 가정을 위해

김지영 집사님과 Josh 가정에 보내주신 **Kaiya**(10세)가 하나님사랑 가족사랑 받고 잘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여 주소서.

말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 하는 성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

➡ 6/1

대표 기도 오귀록 장로
교회 안내 조재연 집사 이윤희 집사
번역/통역 김예람 집사 김혜연 집사
애찬 담당 케냐 구역

➡ 6/8

대표 기도 윤순기 장로
안내/헌금 최상자 집사
번역/통역 이화니 자매 박정호 집사
애찬 담당 요르단 구역

교회행사

6.02 월 인디안 단기선교 출발

6.15 주 Father's Day

6.15 주 각 부서 모임

6.22 주 제직회

<생활 속으로>

1. 주께 가까이 가는 지혜자는, 마라 같이 비통한 심정의 상황 속에서도, '전능자의 살아계심'을, 또 아직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항상 잊지 않고 '나의 가는 길'을 걸어가는 '기쁨의 지혜자'입니다. 나는 행여 '나의 가는 길'의 업 앤 다운 속에서, '전능자의 살아계심'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종종 까먹고 사는건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라, 슬픔'을, 나의 어떤 '나오미, 기쁨'으로 점점 변화시켜주고 계시는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2. 주께 가까이 가는 지혜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복하고,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능동적으로 빚어지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결과'를 굳게 믿으며 '나의 가는 길'을 주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지혜자'입니다. 나는 진정 내 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복하고 있는지, 또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치열하게 고민하고 능동적으로 빚어져가고 있는지, 그리고 오직 '영원한 길' 되시는 '하나님의 결과'를 굳게 믿으며 내 삶을 주께 다 맡기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세요.사로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세요.

향기로운 예물

5/25/2025

주일	1,140
십일조	2,628
감사	1,710
선교	0
구역선교	460
건축	0
주일학교/유스	17
헌금 총액	\$5,955.00

헌금외 수입 0

입금총액 \$5,955.00

이번주 기도구역

Youth 부 (문강한 전도사),
단기선교 위해서

이번주 기도가정

문강한 전도사

교회헌금 온라인

HopeSTL.org/online-donation

WELCOME WORSHIP DISCIPLESHIP

저희 세인트루이스 한인소망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 1968년 세인트루이스 최초의 한인교회로 시작하여, 지금의 한인소망교회로 연합되었습니다. 본 교회는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APC) 소속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한인소망교회에 새로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후 본당 지하 새가족실에서 담임목사님과 함께하는 식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배안내 & 교회소식

함께하는 성경통독! 2025년 한해의 시작과 함께 성경통독을 해서 연말에 1독을 목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소망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6/1	6/2	6/3	6/4	6/5	6/6	6/7
욥 38-42	시 1-5	시 6-10	시 11-16	시 17-21	시 22-26	시 27-31

- 1.기도함:** 기도제목을 작성하여 교회 로비 기도함에 넣으시면 담임목사님께서 기도합니다.
- 2.단기선교 파송식:** 오늘은 예배 중 인디안 단기 선교 파송식이 있습니다.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오클라호마) 다녀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주보 옆면에 있습니다.
- 3.권사 기도회:** 다음주 주일(6/8) 예배 후 1시에 권사기도회로 모입니다.
- 4.소망학교:**소망학교 모임을 6월 10일부터 다음과 같이 개강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옆면에 있습니다.

<이번주 새벽예배 일정>

6/3 화	6/4 수	6/5 목	6/6 금	6/7 토
김성직 목사	김성직 목사	오정훈 목사	오정훈 목사	김성직 목사
민 32:28-42	민 33:1-37	민 33:38-56	민 34:1-15	민 34:16-29

기도회

예배를 위한 기도회

매주 주일 아침
10시 본당 지하
새가족실

장로 기도회

6월14일 토요일
새벽예배 후 6시 45분
본당 옆 회의실

사역자 기도회

6월 28일 토요일
새벽예배 후 7시
본당 옆 회의실

권사 기도회

6월 8일 주일
예배 후 1시에 본당

구역리더 기도회

7월 20일 주일
예배 후 1시에 아가페 홀

Sign up 광고

BOOK CLUB



6/3, 10

교회 로비 게시판에 사인업 해주세요
장소: 화요일 오후 7시 아가페홀

소망학교

장소 본당 지하 식당 옆 회의실
시간 매 주 화요일 오전 11시 -12시 30분
내용 성경공부, 삶 나누기, 유익한 정보 제공 등
모임 후 점심식사 제공됩니다.

인디안 단기선교 파송

명단: 윤순기, 문강한, 홍달표, 김기홍, 이미경, 성혜선, 신상란
김은화, 전세환, 손인자, 전인성, 황석준, 류황성, 노은찬